

# 『Joyce Carol Oates 研究』\*

— 그의 初期小説을 중심으로 —

千 勝 傑

(영문과 교수)

## I

오늘의 대표적인 미국 작가들 중에 Joyce Carol Oates만큼 그 개성이 뚜렷한 작가도 드물 것이다. 우선 30년 가까이 매년 한두권씩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는 Oates의 왕성한 창작 의욕과 그 의욕을 뒷받침하는 뛰어난 창작력은 다른 동시대 작가와의 비교를 쉽사리 허용치 않는 Oates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그 믿기 어려운 왕성한 창작력은 때로 비평가들의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할 정도이다.<sup>1)</sup> 또한 장편소설, 단편소설, 비평, 시, 희곡 등 문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Oates의 다채로운 창작 활동은 다양한 표현 양식에 대한 그녀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주는, 다른 현존 작가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Oates의 또하나의 특성이다.

이러한 외형적 특성 못지않게 Oates가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 소재, 그 독특한 작품 세계 또한 Oates 문학의 특징을 강력하게 드러내보인다. 즉 폭력, 죽음, 두려움, 狂氣, 격렬하고 질박한 사랑의 모티프로 엮어진 삶의 극한적 상황은 Oates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작품 속에서 즐겨 다루는 리얼리티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Oates의 문학적 특성들이 이처럼 모든 독자나 평자가 쉽게 동의할 수 있을만큼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Oates의 소설은 그 주제적 측면에 있어서 한편으로 사회소설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소설적이며, 그 서술 기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험적이며, 또한 그 장르적 성격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사실주의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맨스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이중성은 Oates 소설의 이해와 평가를 단순치 않게 만드는 Oates 문학의 또다른 중요한 특성이다.

본 논문은 Oates의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들이 그녀의 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Oates 소설의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앞에서 시사한대로 Oates의 소설은 장편이 20편에 가깝고 단편소설집만도 10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어서 이러한 짧은 길이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

\* 본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Walter Sullivan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Sewanee Review*, Winter, 1974, pp.138-40 참조.

를 수 있는 작품의 수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Oates는 지금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현역 생존 작가라는 점에서 그녀의 최신 작품들을 그녀의 소설을 대표하는 주요 연구 대상 작품으로 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작가 일반론으로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런 두가지 이유로 해서 본 논문은 *Them* 전까지의 초기소설 3편, 즉 *With Shuddering Fall, A Garden of Earthly Delights, Expensive People*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은 Oates 소설의 특성과 그 핵심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Oates 소설의 변모와 발전의 모습을 의미깊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Oates소설의 전반적 이해에 필수적인, 그리고 중기 및 후기소설의 전조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Oates 소설의 일부만을 다루는 기초작업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Oates 소설의 포괄적 이해에 적결된 작업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II

Oates는 그녀의 비평서인 *New Heaven, New Earth*의 서문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t may be that his role, his function, is to articulate the very worst, to force up into consciousness the most perverse and terrifying possibilities of the epoch, so that they can be dealt with and not simply feared; such artists are often denounced as vicious and disgusting when in fact they are—sometimes quite apart from their individual conceptions of themselves—in the service of their epoch, attempting to locate images adequate to the unshaped, unconscious horrors they sense.<sup>2)</sup>

Oates의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 받는 강렬한 느낌은 그녀의 소설에는 바로 이러한 『도착되고 끔찍한 삶의 가능성들』(the most perverse and terrifying possibilities)이 넘쳐흐르거나 『형태가 분명치 않은 무의식적 공포』(the unshaped, unconscious horrors)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Oates가 그녀의 소설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작가로서의 임무는 바로 위의 예문에서 시사한대로 이러한 격렬하고 극한적인 삶의 가능성들을 두려워 피함이 없이 의식 세계로 끌어내어 표현하고 그 무의식적 공포에 적절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Oates는 왜 격렬하고 극한적인 상황에,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공포에 그토록 집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Oates 자신의 다른 비평서 *The Edge of Impossibility*의 서문에 의미깊게 암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 Oates는 인간은 『절대적 꿈』(absolute dream)을 추구하며, 이 추구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적 규범의 거부를 강

2) Joyce Carol Oates, *New Haven, New Earth*(New York: Fawcett Crest, 1974), p. 16.

요하여 그 결과 『격렬한 자기상실』(violent loss of self)을 가져오며, 이 자기상실에서 비롯된 소외감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Oates는 절대적 꿈과 폭력과 공포와 죽음과 예술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쾌히 설명한다.

Nothing can come from nothing, no energy from a bodiless spirit; thus, there can be no violence out of a sense of nothing, for violence is always an affirmation. Abel claims that the West has always been nihilistic in its imaginative literature, but how can such an assumption account for its very shape, the structural consummation of violent action? Art is built around violence, around death; at its base is fear. The absolute dream, if dreamed, must deal with death, and the only way toward death we understand is the way of violence.<sup>3)</sup>

위 글에서 우리는 Oates가 「폭력」(violence)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Oates에게 있어서 폭력은 삶을 촉진시키는 에너지이며 삶에 대한 하나의 긍정이며 삶의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Oates가 가장 「폭력적」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권투의 열렬한 애호가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sup>4)</sup> Oates는 한 인터뷰에서 왜 『격렬한 상황』(violent situation)이 그녀의 작품에서는 것처럼 자주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I don't know. Am I personally haunted by the fear of violence, the need for violence, and do I reflect everyone else's feeling about it? I sense it around me, both the fear and the desire, and perhaps I simply have appropriated it from other people...<sup>5)</sup>

이 대답은 얼핏 문제의 핵심을 가볍게 피해가는 듯하지만 사실상 폭력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임을 무겁게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폭력적 상황 혹은 극한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劇的이며 소설적 구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작가들이 즐겨 활용하는 소재이고, 폭력적 상황을 다루는 것은 무의미감, 상실감, 性的 혼란등과 함께 현대소설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인 것이 사실이지만 Oates의 경우 폭력(violence)의 문제는 *The Edge of Impossibility*의 서문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그녀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ates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힘(power)의 역학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행동과 그 의미를 결정하는 決定素는 궁극적으로 힘이다. 현대 사회, 특히 Oates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소설에서 그려 보이는 현대 미국 사회는 고도

3) Oates, *The Edge of Impossibility*(New York: Fawcett Crest, 1972), p. 11.

4) Oates는 1987년 Mike Tyson과 Bonecrusher Smith와의 세계 헤비급 타이틀매치의 TV 중계 현장에서 해설자로 활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권투를 소재로 다룬 *You Must Remember This* (1987)라는 소설을 발표할 바 있다. *Yale Review* (Spring, 1989)에 실린 Victor Strandberg의 "Sex, Violence, & Philosophy in *You Must Remember This*" 참조.

5) Joe David Bellamy, *The New Fiction: Interviews with Innovative American Writers*(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4), p. 24.

의 기계문명과 상업주의, 그리고 냉전체제의 국제 정세 및 핵전쟁의 위협까지 곁들여 힘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은 더욱 무력화되어가는, 19세기적인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고 놀랍고 不可解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직 힘의 역학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Oates의 인물들은 바로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인간화된 사회의 무력한 개인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Oates는 이들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는 성장을 위한 것이든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든 어떤 경련 상태에 갇혀 있으며 보통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파괴되어간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sup>6)</sup> 『그들은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sup>7)</sup>는 Oates의 인물들에 대한 Alfred Kazin의 진단은 Oates 자신의 위의 설명의 다른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의 정상적인 건강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분명한 정체성(identity)일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식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당한 역할이 주어질 수 없고 그 사회의 구성원인 다른 개인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이다. Oates의 이 이름의 보통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시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 어떤 운명적인 힘<sup>8)</sup>에 의하여 자주 좌절된다. 그러한 경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아 실현을 위한 그들의 추구하고 노력은 결국 자아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운명적인 힘에 의한 좌절은 그들의 무력함을 확인시켜 주고 그 무력함에 대한 확인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무력감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인 폭력에 의존하게 만든다. Oates의 인물들은 대체로 폭력에 의존함으로써 그 무력감에 대항하며 자기포기의 경우에도 자살등의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폭력은 이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응하는 하나의 필연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역설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힘이 궁극적 결정소로 작용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특히 현대 미국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삶에 대한 폭력적 대응은 어쩌면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대응은 그들의 미묘하면서도 절박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격렬한 사랑으로, 때로는 가학적 섹스로, 때로는 狂氣로, 그리고 때로는 살해와 자살에 의한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Mary

6) Oates, "An American Tragedy," *New York Times Book Review*, 24 Jan. 1971, p. 12.

7) Alfred Kazin, *Bright Book of Life*(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73), p. 201.

8) Oates가 간혹 자연주의작가로 불리는 것은 「힘」에 대한 다분히 결정론적인 그녀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Kathryn Grant가 시사한대로 무력함에서 비롯된 폭력은 결과적으로 더 큰 무력함을 낳고 삶에 어떤 질서를 가져오려는 폭력적 노력은 더 큰 혼란과 더 큰 폭력의 발단이 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비극적이다.<sup>9)</sup> 이제 이 폭력적 대응과 그 비극적 아이러니가 Oates의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특히 주목하면서 Oates의 초기소설에 담긴 중요한 의미와 특성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I

Oates의 첫 장편소설인 *With Shuddering Fall*(1964)<sup>10)</sup>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후기 작품들에 비해 다소 단순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Oates 소설의 특성을 이미 고루 갖추고 있고 뒤이은 3부작<sup>11)</sup>의 전초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 서술 형식에 있어서 대체로 사실주의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물들 간의 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묘사와 사건의 전개 처리에 있어서의 고덕적 수법으로 Oates 소설 특유의 기괴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두려움, 공포, 애증, 죽음, 狂氣 등 Oates 특유의 모티프들은 이미 이 소설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이 모티프들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 생명력을 얻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SF는 17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 Karen과 30세의 자동차경주 선수 Shar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름답거나 슬픈 낭만적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평온함이나 초월적 상태를 성취하려는 욕구로서의 사랑도 아니며, G.F. Waller가 지적하듯이 『폭력적이고 멈추게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해한 힘』<sup>12)</sup>으로서의 미묘하고 음울한 사랑이다.

이 이야기는 Karen이 아버지 Herz를 따라 Shar의 아버지 Rule을 문명하러 가는 어느 봄날의 Eden County에서 시작되는데 Eden이라는 이름과 봄이라는 계절의 역설적 이미지로서의 그곳의 황량한 풍경은 이 음울한 사랑의 전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 draft of cold air touched her face here and she pretended interest in the scene outside: colorless world, colorless morning sky. Light did not seem to come from the sky but pervaded everything—So sullen, so massive, it certainly gave no hint of spring.<sup>13)</sup>

9) Hedwig Bock and Albert Wertheim, eds., *Essays o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München: Max Hueber Verlag, 1986), p. 122.

10) 이하 WSF로 줄여 표기함.

11) 현대 미국에서의 삶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농촌, 도시 교외, 도시 3개의 무대를 통하여 각각 탐색함으로써 3부작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등장인물등 작품들 간의 외적 연관성은 거의 없음. G.F. Waller, *Dreaming America: Obsession and Transcendence in the Fiction of Joyce Carol Oates* (Baton Rouge and Lond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9), p. 28 참조.

12) Waller, *Dreaming America*, p. 17.

13) Joyce Carol Oates, *With Shuddering Fall*(New York: Fawcett Crest, 1964), p. 9. 이하 쪽수만 밝힘.

Karen은 『봄의 흔적이 없는』이 황량한 풍경같은 죽음을 무방비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Rule의 무력함에 강한 증오감을 느끼며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그것은 아마도 Rule의 무력한 죽음에서 자신의 무력한 운명을 感知한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Shar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Karen은 그에게서 곧 어떤 위협을 예감하고 경계심을 갖추지만 『억제할 수 없는 어떤 흥분』과 『위험한 폭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욕구』를 동시에 느낀다. 즉 폭력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동시에 폭력에의 매혹과 욕구를 동반하는 것이다. Karen의 불안한 예감은 그녀를 겁탈하려는 Shar에게 그녀가 저항하다가 차사고가 일어나자 Shar와 Herz가 싸움을 벌이게 됨으로써 현실화되고, 폭력에 대한 그녀의 욕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Shar에 의하여 그녀의 아버지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그 격투 사건으로 충족이 된다. Shar를 쫓아가서 꼭 죽이라는 아버지의 유언같은 속삭임을 들으면서 Karen은 Rule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떠나가는 Shar를 뒤쫓아가게 되고 그들은 결국 연인의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뒤쫓아오는 Karen에게 “What do you want?”라고 묻는 Shar의 질문에 대한 “I want you.”라는 Karen의 대답은 나중의 Shar의 죽음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Karen의 의식 속에서는 Shar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그 부탁의 말이 하나의 악몽처럼 줄곧 잠재하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을런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Shar를 쫓아가는 Karen의 모습은 『여자의 寄生的이면서 위태로운 남자와의 관계』를 적절히 보여주는, 『오토바이를 요란스럽게 몰고 달리는 남자의 등에 매달린 여자의 이미지』<sup>14)</sup>일 수도 있다. Mary Allen에 따르면 Oates의 소설에서 남자의 힘은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더 강화되고 여자는 이 신비로운 힘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남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하는 힘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sup>15)</sup>

Shar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그것도 가장 위험하게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경주 선수라는 사실은 Karen과 Shar와의 관계를 Allen의 주장과 같은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Karen이 아버지 Herz에게 이끄러는 것은 아버지의 그 야성적이고 냉혹한 남성적 힘이라는 점에서 Herz와 Shar의 대결은, 그리고 Karen과 Shar와의 관계는 아마도 필연적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Karen은 Shar에게서 『낯선사람의 힘』(strength of a stranger)과 함께 미묘한 소외감을 느끼고 Shar 역시 자신이 어떤 덧에 걸려 있다는, 항상 Karen에 옥죄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Shar는 Karen에 대한 착잡한 애증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He embraced her with his body. Anguish overtook him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make

14) Mar Allen, *The Necessary Blankness: Women in Major American Fiction of the Sixtie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6), p. 140.

15) *Ibid.*, p. 140.

her feel as he did, then frustration, then the beginning of his mute, angry violence: she resisted him at the same time she gave herself to him, he thought; she did not love him, she mocked him, she used his infatuation to degrade him. In the face of such mockery Karen's gentleness, her silence even to his deliberate coarseness, irritated him until he felt like striking her, forcing her to cry out—as she sometimes did—in sharp, surprised pain. But her body had adapted itself to him now, he could hurt her only from time to time, and as he did it he was tortured by the fact that he wanted to do it; he could not understand... he could not reach her. In desperation he gave himself up to the hot sucking softness of her body. He could stand it no longer; he cried out, he sobbed helplessly against her tensed face, he felt her small limbs brace him as if to prevent his doing violence against himself. (pp.80-81)

두 사람 사이의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Synderdale의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Shar와 경쟁을 벌이던 선수가 충돌 사고로 죽고 Shar가 우승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다. Karen은 Shar가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범했다고 비난하며 점점 더 심해지는 자신의 무력감과 모든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 그리고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낯선 세계에 대한 증오심』을 느낀다. 그러나 Karen은 Shar와의 단절감과 소외감을 강렬하게 느끼면서도 Shar가 자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과 Shar와의 그 숙명적 관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게임, Shar는 그 규칙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냉정한 절제로 통제해야 할, 자신이 울며 Shar에게 도움을 청할 때 끝장이 나버리고 말 그러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Shar는 자신의 죽음을 기대하며 즐길 관중들을 증오하며 자신을 사랑의 노예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Karen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한다. Shar는 그가 자신의 한 부분인 Karen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포기를 뜻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Karen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오히려 Karen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 유희 끝에 그는 자기와 Karen이 서로를 원하면서 서로 낯선 사람으로, 서로를 유혹하면서 서로 뒤통에 걸려, 영원히 서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운명임을 깨닫고는 결국 Karen에게 자기와 결혼을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Karen은 Shar에게 사랑을 느끼면서도 “You made me sick”라고 대답함으로써 Shar의 청혼을 거절하지만 Shar가 경기장으로 떠날 때 그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와주기를 바라면서 Shar가 죽으면 자기도 죽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경기장에 나선 Shar는 그가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공허했고 자신의 삶은 반쪽 삶일 뿐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이제 폭력과 죽음에 대한 관중들의 갈구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사랑의 영향력이라고 깨닫는다. 그는 휴대폰을 거부하는 자동차의 기계 장치, 마치 죽음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듯 안전을 위해서 고안된 장갑, 안경, 헬멧, 충격완화 장치, 방화복 등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경쟁을 하던 흑인 선수의 차를 앞질러 계속 가속 페달을

밝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남성다웠음을,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의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기 전 힘차게 뛰는 심장의 고동에서 순간적인 쾌감을 느낀다.

Max가 Karen에게 Shar의 사고 소식을 전했을 때 Karen은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Shar의 자살이었음을, 그리고 그녀는 그의 자살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You can't even understand what he did! His life was an accident, without plan—I know that, I am part of it—I know it—look at that, there,” she said in a shrill, angry voice, pointing accusingly at herself in the mirror, “an accident! My face is an accident! Shar was trapped by it, by an accident—his life was an accident but his death wasn't—he made his death for himself! He was a man!”(p. 191)

Shar의 격렬한 죽음을 가져온 사고 사건은 그의 죽음을 흑인 선수 Vanilla Jones의 책임으로 돌리는 군중들의 격렬한 인종 폭동으로 이어지고 流産하여 피를 흘리며 폭동의 거리를 방황하는 Karen의 처절한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Shar의 죽음 그리고 Karen의 유산과 피흘림은 Karen과 Shar와의 사랑의 실패에 대한 격렬한 비극적 상징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ax의 비난처럼 Karen 자신이 그들의 사랑의 죽음을 초래한 살해자(murderer)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Shar가 죽기 전 느꼈던 어떤 정서적 만족감이나 평화감, 비록 정신병원에 갇혀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Karen이 아버지와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이루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 소설이 『봄』 『여름』 『가을』의 3부로 끝을 맺고 『겨울』의 종말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은 이 소설이 오직 허무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결코 야당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 소설에서 우리는 사랑의 불구적 跛行, 비정상적인 병적 심리, 격렬한 가학적 폭력이 때로 지나침을 느끼지만 그것은 사랑의 본질과 폭력의 의미와 삶의 조건같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탐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Oates가 그의 초기 소설에서 강조하여 추구하는 자아의 성장과 실현의 주제에 맞추어 이 작품을 이해할 때 다소 의욕과잉적인 이러한 탐험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WSF를 뒤잇는 이른바 초기 3부작은 자아 성장과 실현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노력의 일관작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IV

WSF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힘, 사랑, 폭력, 狂氣, 죽음, 性的 모티프들은 *A Garden of Earthly Delights* (1967)<sup>16)</sup>에서도 집요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더욱

16) 이하 GED로 줄여 표기함.



확대된 복합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WSF*가 Karen과 Shar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주로 개인의 문제와 비교적 단순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GED*는 Clara, Carleton, Lowry, Swan, Revere 등 많은 주요 인물들 사이에 얽힌 가족간의 복합적인 인간관계,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의 문제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WSF*가 1년이 채 안되는 짧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GED*는 3대에 걸친 50여년간의 긴 시간을 포괄하고 있는 까닭이다. Oates의 소설이 항상 그렇듯이 *GED*의 경우도 내용에 상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WSF*가 농축된 심리적 탐구라면 공황기 직전인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한 *GED*는 방만한 서사적 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사회의 하층민의 생활이라는 미국의 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은 Clara라는 한 여인의, 딸로서의, 연인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3대에 걸친 삶을, Clara의 아버지 Carleton과 그녀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의 삶을 다룬 1부 “Carleton,” Clara와 연인 Lowry의 관계를 그린 그녀의 젊은 시절의 2부 “Lowry,” Revere의 아내로서의 Clara와 그녀의 아들 Swan의 삶을 Revere家와의 관계에서 다룬 3부 “Swan”으로 각각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 소설 역시 처음부터 이주농민들을 실은 트럭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비오는 길거리에서 Clara가 분만되는 격렬한 상황으로 시작된다.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아내 Pearl이 차라리 죽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가난과 무력함에 대하여 자책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는 떠돌이 농부 Carleton의 일그러진 모습은 이 소설, 특히 1부의 내용을 농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이미지이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불가해한 운명의 힘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노는 Carleton으로 ‘하염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낯선 사람』(stranger)으로 느끼고, 『누군가와 싸우기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적의에 사로잡히게 한다. 같은 떠돌이 친구인 Rafe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한 것도, 그리고 자신을 아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증오함으로써 결국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 것도 모두 이러한 그의 적의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적의가 그에게는 자기자신의 최소한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의와 그 적의에서 비롯된 폭력적 결과에 대하여 그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전통적 의미의 선과 악의 구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에게는 오직 힘과 폭력과 본능의 논리를 따르는 것만이 불가해한 운명과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Rafe의 살해를 정점으로 하는, 아버지의 분노와 적의가 가져온 폭력적인 삶, 산욕열에 의한 어머니 Pearl과 아기의 죽음, 오빠 Mike와 언니 Sharleen의 가출,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Bert의 밀주단속반에 의한 打殺,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Bert의 딸 Rosalie의 사생아 死産, Clara의 어린 시절은 이러한 격렬하고 폭력적인 사건들로 가득차 있다. Clara가 Lowry를 처음 만나 그의 집에 따라 갔을 때 Lowry가 “You’re just a child.”라고

말하자 Clara는 “I am not a child, I never was.”라고 대꾸하는데 Clara의 어린시절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천진스런 삶이 거부된, 오직 격렬한 좌절과 패배와 죽음으로 얼룩진 어른들의 일그러진 삶의 편린들로 점철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Clara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일찍 눈을 뜨므로써 닥쳐올 운명에 대비하고, 자신을 편애하는 Carleton의 사랑을 통하여 그의 분노와 적의의 세계를 한편으로는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Carleton에 대한 Clara의 애정은 그녀로 하여금 Carleton의 모습을 닮은, Carleton처럼 과묵하고 우울해 보이지만 뭔가 잠재해 있는 힘을 느끼게 하는, 마치 Carleton의 분신같은 Lowry에 이끌리게 만든다. Lowry와의 만남을 알게 된 Carleton에게 구타를 당하고 집을 뛰쳐나온 Clara와 Clara를 찾아 길을 나서는 Carleton의 두 지향없는 모습으로 1부 “Carleton”은 끝을 맺는다.

2부 “Lowry”는 전반부에서 Clara와 Lowry의 관계를, 후반부에서는 Clara와 Revere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Clara와 Lowry의 관계는 *WSF*에서의 Karen과 Shar와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늘 불만 속에서 행복감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Lowry의 불안정한 모습과 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견고함이나 냉정한 強氣(hardness)는 곧 Shar의 모습을 떠올리며 집과 아버지로부터 뛰쳐나와 Lowry에게 숙명적으로 매어달리는 Clara의 모습 역시 Karen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도 것처럼 절박한 상황인데도 어찌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미묘한 갈등은 Karen과 Shar 사이의 갈등을 연상케 한다. Clara 역시 Karen처럼 Lowry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절박한 무력감』(desperate helplessness)을 느끼고 Lowry를 사랑하면서도 때로 『낯선 사람』(stranger)으로 다가서는 그에게 증오심을 느낀다. Clara는 Lowry에게 그녀의 느낌을 이렇게 전한다.

...“I get all mixed up with you,” she said bitterly.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then when you come I’m all mixed up—if we didn’t talk I could love you and not think about it, I’d like to hold you, I’d do anything for you, but you say things and make me hate you, I can’t help it, and I’ll always remember it all my life—how I hate you—”<sup>17)</sup>

그리고는 후에 Lowry가 그녀를 데리러왔을 때 그를 그토록 오래도록 그녀와 가깝게 유지시켜주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그것을 지탱해준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증오심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Clara는 자신이 두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이제 익숙해진 Tintern 읍의 경계 내에서 약국 점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달틴 세계와 보이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갈망하며 Lowry와 함께 지향없이 떠도는 열린 세계,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Lowry 역시 두 부분, 『바깥부분(outside part)』과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안부분(inside part)』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그래서 Lowry가 『어떤

17) Oates, *A Garden of Earthly Delights*(New York: Fawcett Crest, 1967), p.141. 이하 쪽수만 밝힘.

곳에 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곳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것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Clara와 Lowry의 갈등은 Karen과 Shar의 경우처럼 그렇게 절박하거나 절망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그 갈등은 Shar의 자살이나 Karen의 流産과 狂氣같은 격렬하고 폭력적인 파국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Lowry가 Clara에게 Revere와의 관계를 끊고 Canada로 함께 떠나자고 호소할 때 Clara는 자신이 『Lowry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숙명적으로 느끼면서도 그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고 (마치 결혼하자는 Shar의 마지막 부탁을 Karen이 거절했듯이) Lowry는 결국 Clara의 거절을 받아드려 계속 그다운 방향의 길을 떠나며 Clara는 流産하지 않은, Lowry와의 사랑의 결실인, 그 Swan의 삶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Clara와 Lowry의 관계의 이러한 처리는 어쩌면 *WSF*에서의 Karen과 Shar가 그들의 갈등을 극복하여 것처럼 격렬한 파국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그들이 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Clara가 Lowry와의 관계를 것처럼 매듭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버지 Carleton과 Carleton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주 농민들의 방황하는 삶을 통해서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어른의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Clara는 Karen보다 자아 인식과 자아 성장의 좀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lara가 Lowry와의 막연한대로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부남인 Revere의 접근을 별로 큰 저항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Karen에 비하여 다분히 俗化한 Clara의 현실 인식에 연유하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Clara의 도덕 불감증과 쓰라린 가난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객관적 현실의 정당성과 가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자신의 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태도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도덕률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로 연결되기 쉽다. Shar나 Carleton이 자신의 비도덕적인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고 가치있는 일은 도덕적으로 항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Clar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lara가 자라온 사회 환경은 Clara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도덕 불감증 못지않게 Clara로 하여금 Revere를 쉽게 받아드리게 한 또하나의 이유는 그녀의 가난과 무력함이다. 『미국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큼 영혼의 분열을 일으키는가』하는 것이 Oates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는 Josephine Hendin의 지적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sup>18)</sup> 사실 Oates 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그토록 집착하는 현대작가도 드물 것이다. *WSF*의 Shar는 물론이고 이 작품의 Carleton과 이주농민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정

18) Josephine Hendin, *Vulnerable People*(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157.

도의 차이는 있지만 Lowry까지도 가난에 의하여 영혼의 분열을 겪은 사람들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사회의 풍요함 속에서의 가난은 이들의 소외감과 무력감을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사회에서 富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힘이기 때문에 부를 갖지 못한 이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힘을 바라고 힘에 이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가난한, 혹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Oates의 인물들은 대체로 폭력적이고 냉혹한 남성적 힘을 느끼게 하는데 그 폭력적 힘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거부와 분노와 혐오의 역설적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가난과 무력과 대조되는 Revere의 막강한 富의 힘, 더구나 부의 상징인 그의 광활한 땅이 암시하는 엄청난 힘에 Clara가 쉽게 이끌리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힘의 원리와 그것이 일으키는 갈등의 의미는 Swan의 성장과 파멸과정을 다룬 3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를 강한 남자로 기르기 위하여 그에게 사냥과 총 다루는 일을 가르치려는 Revere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Swan은 Revere가 지니고 있는 그 힘의 의미를 꼼꼼 생각해 본다.

...This man here, this kindly man with the strong hands and the urgent, perplexed look—he too had power, the power suggested by this large house and the barns and land behind it, the enormous sweep of cultivated land that belonged to him while so many people owned nothing at all. He could walk confidently across his land and know that he owned it because he was a man, an adult, he possessed the mysterious power of strength that no child possessed, even those boys at school who pushed Swan around. But even those children had no real strength; adults owned them. Everyone was frightened by someone else, Swan thought. It was a thought he did not quite understand. (p.254)

Swan이 강한 남자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Clar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lara가 Steven이라는 정식 이름 대신에 그를 Swan으로 부르는 것은 백조(swan)는 『냉정해보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알이 유리처럼 단단하고』, 『때론 위험한』 새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살생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Swan은 이복형인 Robert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다분히 殺意가 담긴 오발 사고로 그를 죽이게 된다. 한편 Revere의 신뢰 속에 점점 Revere의 후계자로서의 위치가 굳어져 가면서 Swan은 Revere와 Clara가 바라는 대로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하여 Loretta와의 사랑과 책임기에 빠져들어 나약해지는 것을 애써 피하며 『자신을 일종의 기계로 변형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Revere의 일을 도울 그 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 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등을 느낀다. 또한 Revere로부터 물려받을 그 광활한 땅에 잠재한 힘에 이끌려 그 땅에 대한 강한 애정과 탐욕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땅이 암시하는 거대한 힘의 압박감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Swan의 이러한 갈등은 그의 성장과 함께 점점 심화되어 자신이 그 갈등으

로부터 결코 헤어지지 못하리라는 절망감, 자신을 사랑하며 동시에 증오하는 결혼한 6촌동생 Deborah와의 병적인 밀회가 가져온 패배감, 그리고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랑이 끝내 자유롭게 방출될 수 없으리라는 데서 오는 좌절감으로써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고 싶은 격렬한 욕구로 마침내 폭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Swan은 거의 狂氣의 상태에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그 근원인 누군가와 자기 자신을 함께 파괴해 버리기로 결심하며 결국 Revere와 자신을 차례로 쏘으로써 아이러니한(그 누군가는 아마도 Clara였을 것이기 때문에) 결말에 이른다. 이 긴 이야기를 끝맺는 마지막의 파국은 다소 급작스런 감이 있지만 매우 격렬하고 폭력적인 그 효과에 있어서 이 작품의 주제에 걸맞는 성공적인 끝맺음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한 가족의,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사회의 붕괴라는, *WSF*의 경우보다 더 심화되고 확대된 음울한 비극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허무주의적인 것만은 아님을 작가는 Clara의 후일담을 통하여, 즉 *WSF*의 Karen 처럼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규칙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위로하는 의붓아들 Clark Revere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며 여전히 TV의 폭력 프로를 즐기는 Clara의 모습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결코 허무주의적이 아닌 것은 아마도 그 사회소설적 요소와 풍자적 요소에서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WSF*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심리소설적 요소가 강하지만 그러나 이 작품은 개인의 감정과 심리의 중요성 못지않게 Carleton家와 Revere家와 같은 계층이 엄중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미국의 사회 현실, 그 사회 현실과 힘의 논리와 의 함수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지니는 의미가 이들의 사회적 도덕적 삶의 조건에<sup>19)</sup> 미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WSF*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비평적, 풍자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농사도 짓지 않을 사람들이 농토는 왜 사며 그들처럼 정작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은 왜 지을 땅이 없는가하는 Clara의 의아함 속에, Revere 같은 대토지소유주의 경우 새 법이 통과되면서 『손을 뻗쳐 줍지만 하면 돈을 무더기로 모을』 수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며 그때 Revere가 왜 좀더 많은 땅을 확보하지 못했던가하는 Swan의 아쉬움 속에, Bert가 밀주단속반에 맞아 죽을 때 나쁜 짓을 하면 구속하고 구타하는 것이 법이며, 『여기는 미합중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부당하게 죽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Nancy의 소박한 믿음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울며불며 소란을 떠는 신도들을 보고 자신은 정말 『현실적인』(real) 일이 일어날 때만 우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도 아닌 일에 『다치지도』(hurt) 앓고서 왜 우는지,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나 보다고 의아해하며 神은 자기같은 힘없고 하찮은 사람에게는 신경을 안 쓸테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Clara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국사회에서의 토지와 富, 법, 종교 같은 문제의 허실에 대한 의미깊은 풍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Oates가 때로 「사회 소설

19) Waller, p. 6 참조.

가] (social novelist)로 불리는 것은<sup>20)</sup> 아마도 사회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GED*에서의 이러한 풍자적 요소는 다음 작품인 *Expensive People* (1968)<sup>21)</sup>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 V

*EP*는 앞선 두 작품, 특히 *GED*와는 아주 이질적인 작품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EP*의 형식과 스타일은 매우 새롭고 실험적이다. *GED* (*WSF*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의 스타일이 대체로 사실주의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다면 *EP*의 그것은 환상적이고寓意적이며 *GED*가 전통적인 삼인칭 시점의 내러티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EP*는 다분히 실험적인 일인칭 시점의 고백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EP*와 *GED*가 다루고 있는 사회 환경과 리얼리티는 아주 다르다. *GED*가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가난한 하층민들의 삶을 진찰하고 있는 반면 *EP*는 도시 교외를 배경으로 상류 사회의 풍요한 삶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의 이러한 相異點은 곧 두 작품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EP*는 *GED*와의 관련하에서, 즉 *GED*의 연장선상에서 비교 대조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작자는 *GED*에서 미국의 하층민들의 질척한 삶의 현실과 그 갈등을 탐색한데 이어 *EP*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상류층의 환상적인 삶의 허실을 꿰뚫어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상류층의 화려한 삶의 표면 아래 감추어진 공허함, 킨닝의 아이디어 한 件에 5달러, 숙제 복사 1회분에 50센트 式의 『돈냄새』를 물씬 풍기는 Fernwood 상류 사회의 아이들, 알콜 중독, 마리화나 중독, 킨닝 중독 학생들이 가득 수용된 명문 Johns Behemoth 사립학교, 흰 옷 입은 웨이터들이 마치 『무덤行을 환영하는 유명』처럼 떠도는 사교 클럽, 153점의 IQ점수도 부족해서 IQ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강요하는 속물적 탐욕과 지적 허영, 점잖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불륜행위, 이 작품에서는 미국 상류사회의 이러한 병적 양상들이 신랄하고 다채롭게 풍자되고 있다. 그러나 *GED*에서의 풍자가 사실적이고 사회소설적인, 비교적 단순한 풍자인데 반해 이 작품에서의 풍자는 희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기괴하고 음울한 그 특징으로 해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냉소적이다.

*GED*와 *EP*의 또다른 중요한 연관성은 *GED*의 3부에서 암시된, 부모에 대한 Swan의 미묘한 애증의 심리, 특히 마지막 부분의 부모 살해 모티프가 *EP*에서 더욱 발전하여 이제 그 라이트모티프로 다루어진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Swan의 심리적 갈등을 주로 다룬 *GED*의 마지막 3부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의 세계를 본격적

20) Kazin, *Bright Book of Life*, p.199와 Susan Wood, "Vengeance in Washington," *The Washington Post*, August 19, 1981, p.5 참조.

21) 이하 *EP*로 줄여 표기함.

으로 다른 *EP*의 진초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P*는 어머니의 살해라는 중심사건, 그리고 주인공 Richard Everett의 삶이 그의 부모 Elwood Everett와 Natasha(Nada) Romanov와의 미묘한 삼각 관계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그 설정 자체에서 이미 강한 심리적 요소를 지닌 작품이다. 어머니의 살해라는 폭력적 행위로 그 정점에 이르는 Richard의 심리적 갈등은 Elwood가 자신의 친아버지인 가하는 Richard의 거듭된 의문과 다른 아버지의 나타남에 대한 기대감에 의하여 강조되는 아버지 추구의 모티프, 즉 아버지와 적대 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살해함으로써 어머니의 존재에 의하여 거세된 진짜 아버지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아버지 추구의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Richard로 하여금 어머니를 살해케 한 그 갈등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여러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 증오, 그리고 어머니와 다른 남자들과의 불륜의 관계가 야기한 질투의 감정이 뒤섞인 Oedipus 콤플렉스적 욕구의 산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Richard의 심리적 갈등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갈등은 곧 Richard의 자아성장 및 자아실현의 필연적 과정으로서 기능하며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 Richard는 결국 자기 발견—그것이 아무리 비극적인 결말을 수반한다 하더라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아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은 곧 진실(truth)의 발견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이 소설은 서두부터 진실 자체의 문제를 계속 들먹이며 시작된다. 話者는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며 허구 위에 세워진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기초로 한 회고록이라는 점을 fiction과 novel과 memoir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註釋까지 원용해 가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는 자서전적 기록을 빙자한 허구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상투적 수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 진실 자체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룰 것이라는 작자의 진지한 의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가득한 속임, 꾸밈, 조작, 허위의 모티프들은 이러한 작자의 의도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사실 이 작품은 병적으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Richard라는 한 어린아이의 현실적 심리적 체험을 통하여 자신과 주위의 진실들에 하나씩 開眼해가는 입문소설적 요소가 강한 작품이다. Richard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메마른 삶을 통하여 상류사회의 공허함, 그 허위의식, 무책임감, 속물 근성, 그리고 Behemoth의 학교 생활을 통하여 그러한 어른들의 왜곡된 삶이 아이들의 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깨달으며, 이러한 깨달음은 학교 기록실의 집기물들을 파피하고 은행의 꽃밭을 마구 짓이긴 난동, 어머니의 살해로 끝을 맺는 저격행위 등의 그의 발작적인 폭력에 대한 심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 Richard는 어머니의 소설 “The Molester”에서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진실을 읽어내고 어머니의 진짜 모습, 아버지와 자기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stranger)으로서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어머니에 대한 더 강

렬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랑이 어머니의 살해라는 폭력으로 폭발하는 것은<sup>22)</sup> 매우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아이러니의 의미는 자기 확인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의 속성을 상기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Richard는 어머니의 죽음 후에, 어머니의 내면적 진실만이 아니라 그녀가 Natasha Romanov가 아닌 뉴욕주 North Tonawanda 출생의 Nancy Romanow라는 그녀의 구체적인 새로운 외적 진실에 접하면서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찾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 후, 새장가를 들어 새 집으로 이사한,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버지 Elwood의 모습에서 Richard는 항상 그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낀 그의 오랜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전과는 전혀 다른 무섭고 엄한 진짜 아버지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Richard는 자신의 그 밤의 저격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 Richard는 자기 발견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My daytime self was a failure, no doubt of it, but my nighttime self was strong. If only Nada could see me now and realize what I was—not that feeble, sickish daytime child of hers, but a darker, more secret child of hers, a boy who belonged only to her and dedicated everything to her.

...I ran and ran, and in a sense I am still running, panting as I type out these words, recalling the night air and the terrible loneliness I had discovered, but a loneliness that made me know who I was. The loneliness everyone feels, suddenly, when he begins to think: and once you discover it you can't push it away. Only Nada and I lived in it, this loneliness, and never until that night had I sucked it happily into my lungs and guts and understood what it was. (p. 236)

Richard는 이러한 자기 발견을 통하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생존 조건으로서의 고독의 운명을 이해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살해 후에는 죄를 짓고도 계속 자유로와야 하는 즉 「중신 자유형」을 선고받은 囚人으로서 자유로움의 역설적 의미를 공허하게 깨닫기도 한다. 그 공허함의 허기를 느끼며 그것을 채워줄 어떤 힘을 바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불가해한 폭력적 행동이 자신의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애써 자위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 기이한 회고록을 끝맺는다.

이 소설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앞선 두 작품, 그리고 뒤이은 *Them*과도 아주 다른 그 강한 실험성으로 하여 Oates의 예외적인 작품처럼 보이지만, Oates의 주요관심사인 자아실현 및 인간관계의 신비의 주제를 그녀 특유의 두려움, 애증, 광기, 죽음, 섹스 등의 모티프를 통하여 다루고 있고 그 자아실현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폭력의 심리학을 통하여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매우 Oates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EP*의 중요성은

22) Mary Kathryn Grant는 Richard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음을 *GED*의 Swan과의 근본적인 차이로 지적하고 있다. Mary Kathryn Grant, *The Tragic Vision of Joyce Carol Oates*(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78), p.51 참조.



Oates 소설의 가능성과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이중성에 있다 할 것이다.

## VI

지금까지 우리는 Oates의 세 작품을 통하여 Oates 소설의 다양한 특성들—때로는 동질적이고 때로는 이질적인 그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특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왕성한 창작력과 다양한 표현 양식에의 집념에서 드러나는, 삶에 대한 Oates의 총체적 관심은 그녀의 작가적 태도나 입장을 분명하게 한계짓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Oates 자신이 시사하고 있듯이 그녀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조건을 인간의 감정과 정서(emotion)의 신비를 통하여 탐험하는 것이 그녀의 작가적 의도라면 그녀의 작품 세계는 그녀 스스로 정의한대로 「심리적 사실주의」(psychological realism)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사회에서의 가난에 대한 그녀의 집념과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힘의 역학적 갈등으로 삶을 파악하는 그녀의 태도를 증시한다면 그녀의 문학은 「사회적 사실주의」(social realism)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녀의 많은 작품에서 암시되고 있는 결정론적 인생관이나 환경의 영향, 운명의 힘, 인간의 동물적 폭력 본능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그녀의 작품 세계는 미국문학의 「자연주의적」(naturalistic) 전통 속에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Oates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보다 풍부하고 보다 깊은 Oates 문학의 정수를 놓치기 쉽다. 왜냐하면 Oates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한 사회 속에서의 개인 간의 내면적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서 비롯되는 폭력적 인간 관계의 신비인 까닭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Oates의 이 개인들은 사회의 어떤 경련 상태에 간혀 파괴되어가는,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왜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익명의 보통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불가피한 현실세계와 그들의 의식의, 혹은 상상의 세계 사이에서 때로는 사랑하고 열망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절망하며, 격렬히 몸부림치는 것이다. 초기 세 작품을 포함한 Oates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 두 세계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통하여 삶의 이중성의 신비를, 그리고 그 이중성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폭력적 관계에 미치는 신비스런 영향을 투사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Oates의 작품에서 이 두 세계는 그 격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때로 위태롭고 불안스러운대로 어떤 균형을 유지한다. 이 신비스런 균형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실상 Oates는 삶의 다양한 의미와 그 신비를 줄곧 사랑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사랑은 때로는 증오의 모습으로 때로는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Oates에게 있어서 증오와 폭력은 사랑의 대립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한 부분으로 혹은 사랑의 의미를 보다 복합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보완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일 것이다. Oates가 집요한 관심을 가지는 삶의 사회적 도덕적 조건이나 인간 정서의 신비는 바로 사랑의 조건이며 사랑의 신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그녀는 사랑의 복합적 의미를 끈질기게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Oates의 주요 인물들은 항상 어떤 종류의 사랑, 대체로 격렬하고 절박하며 때로는 증오와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의 행위가 불가해한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무형적이고 혼란스런 삶에 어떤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가해한 어떤 경련 상태에 갇힌 현실 세계와 자신의 의식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며 오직 사랑의, 때로는 폭력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익명의 인간들의 절박한 몸부림은 초기에서 최근에 이르는 Oates의 모든 작품에 일관되어 나타나며 삶과 세계에 대한 Oates의 근본적인 태도, 즉 작가로서의 그녀의 주제 의식을 잘 요약해 보여준다. Oates는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생존의 윤리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은 무형의 세계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려는 창조적인 자기 확인의 노력을 포함하며, 그 노력은 오직 사랑의 행위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 세계의 도덕적 사회적 조건과 인간 정서의 신비에 대한 Oates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의 문학적 結晶인 그녀의 작품 세계는 이 생존의 윤리와, 자기 확인의 노력과, 사랑의 행위 사이의 함수 관계에서 보다 선명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Childwold*(1976) 등 Oates의 중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소설들은 소설의 형식과 기교에 있어서 실험적 요소가 더욱 강해지고 또 다양해져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Bellefleur*(1980)를 기점으로 하는 1980년대 이후의 소설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된 역사적 조망을 담음으로써 사회의 개념에 대한 Oates의 확장된 의식의 변모를 느끼게하지만 이 함수 관계는 여전히 Oates의 소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Abstract》

## A Study on Joyce Carol Oates's Early Novels

Seung-Gul Czon

One of the representative contemporary American writers, Joyce Carol Oates has cultivated her very unique world in various ways for the last thirty years. Among the distinctive features characterizing Oates's world are her unbelievably prolific writing, her deep concern with the diverse expressive modes running the whole gamut of literary genre, and her constant obsession with such extreme situations of human existence as violence, murder, insanity, death, and desperate love.

However, the uniqueness of her world is not always so clearly distinguishable. For instance, her novel is in its thematic nature socialistic on the one hand and psychological on the other, while in the narrative style it is sometimes traditional and at others experimental. Also in the nature of literary genre her fiction is realistic in some sense and romantic in another.

The purpose of this essay, which will be a kind of foundation work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Oates's fiction, is to examine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worked out in her first three novels, *With Shuddering Fall*, *A Garden of Earthly Delights*, and *Expensive People*, and pave the way for the diversity of her later novels.